

Session 05 : 요엘서의 2가지 영적 문화 세우기 (욘 1:2-3) (Establishing a Joel 2 Spiritual Culture)

2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욘 1:2-3)

I. 요엘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일지어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 (욘 1:2)

A. 요엘서의 첫 번째 권고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이며, 이는 요엘서 1:1~2:9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하며, 그분의 축복의 충만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그분께 대해서 동의하며,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만 가능한 일임을 알고 계신다.

B.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요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없던 부흥으로 풀러지게 되는데, 이는 적 그리스도와 대 환란의 재난과 함께 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며 환란 가운데에서도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간다면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 **주께서 흑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욘 2:13-14)

C.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의 부르심은 요엘서의 메시지에 대해 연구할 것에 대한 부르심이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대해 들음으로 다가올 영광과 재난에 이해할 것에 대한 부르심이다. 우리가 오늘날 요엘의 메시지를 이해해나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D. **들을지어다** : 이는 우리가 더 명확히 잘 들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갈 것을 말한다.

E.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 “들을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주의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실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고도 충만하게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1.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부분을 대충 설명해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로 처음에 끌어오르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를 메시지를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연구해나가야 한다. 엠마오로

Session 05 요엘서의 2가지 영적 문화 세우기

가는 길에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원한다(눅 24:32).

2. 들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이해를 기경해 나갈 것에 대한 부르심인데,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우리의 육을 거스르기(실족케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저항한다.

F. 마지막 때에 대한 들음은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의 이해를 기경해나가야 한다. 사도들조차도 부활 후의 예수님과 대화 할 때, 둔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막 16:14).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을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막 16:14)

G. 이러한 계시를 깨달아가는 과정은, 요엘서와 같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시작되게 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초기의 열정에만 머무르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살아 있는 계시가 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에스겔과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eat the scroll)”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완전히 소화할 것을 말씀하셨다(겔 3:1; 계 10:9). 우리가 메시지로 우리의 영을 먹이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받게 되는 처음의 영감은 곧 사라져버리고 만다.

H.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이 반복하신 권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들을 귀를 가지라는 것이었다. 이는 성경에 16번이나 기록되었다(복음서에 8번, 계시록에 8번, 마 11:15; 13:9,43; 막 4:9,23; 7:16; 눅 8:8; 14:35; 계 2:7,11,17,29; 3:6,13,22; 13:9).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2:7)

1. 첫째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께 있어 극도로 중요한 부분임을 말해주고 있다.

2. 둘째로, 예수님께서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 앞에 있는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해하는데 만족하지 말 것을).

3. 셋째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헌신된 신자일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를 자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깨닫는 것이 우리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원하신다.

4. 넷째로, 이 메시지가 말하고 있는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집중력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 대해 자동으로 깊고도 지속적인 방법으로 응답하게 되지 않는다. 이 진리들을 우리의 삶에서 긴 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끈질긴 헌신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가 쉽게 이를 놓아버리기 때문이다.

II. 다가올 환란은 전에 없던 일이고, 따라서 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욘 1:2)

- A. 요엘은 그들의 시대에 일어난, 전에 없던 규모에 대해 강조하며 그의 글을 시작한다. 그는 사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전에 본적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일이 과연 정상입니까?” 요엘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다가오고 있는 일이 전에 없던 일이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며, 이에 대해 듣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다.
- B.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이 온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다(학 2:7). 나는 우리가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시간대의 일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에, 이에 대해 준비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6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 (학 2:6-7)

- C.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불신하는 기롱하는(조롱하는) 영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벰후 3:3-4)

1. 베드로가 선견한 기롱하는 자들은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할 것이다.
 2. 그들의 세계관은 말씀을 통한 말씀의 계시에서 오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정욕이나 자신이 기대하는 바에서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 단순화시켜버리거나 너무 과도한 것으로 여겨버릴 것이다. 베드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에 의해 움직일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들의 목표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3. 그들 안의 불신과 냉소적인 마음으로 인해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니 있느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다가올 부흥이나 심판이 도대체 있기는 한거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롱하는 자들은, 모든 것은 항상 있어오던 그대로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계속할 것이다.
- D. 많은 이들은 다가올 일에 대해 단순히 무시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들은 (내가 부르는) 타조 신드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머리를 땅 속에 박아두고 모든 것이 지나가기만을 소망하는 것이다. 말씀에 기록된 일들은 그냥 지나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일들은 우리의 준비됨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상 가장 큰 부흥과 가장 큰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 최상의 날이자 최악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E. 노아는 전혀 생소한 예언적 메시지에 대해 끌어안은 훌륭한 본이 된다. 노아의 때에, 그의 예언적 메시지는 완전히 전에 없이 생소했기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0일간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 이후로 그때까지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비가 아닌 밑에서 올라오는 물들로 땅을 적시셨다.

6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 2:6)

1.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물이(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물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비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소한 메시지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경외함(히 11:7)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상상해보자. 방주를 짓기 시작한지 80년이 되었을 때 즈음, 그의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노아, 너 제대로 들은거 맞아?”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 11:7)

2. 노아는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나무를 베고 방주를 짓는 일에 -백년 이상- 투자하는 과격한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해나갔다. 노아는 주의 말씀하심을 굳게 확신하였기에, 이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쓴 방법은 전에 없던 방식이었다.

III. 리더들은 리더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2 높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 (욘 1:2)

- A. **높은 자들아** : 들을 것에 대한 부르심은 먼저 요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리더십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의 세대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나갈 리더들을 세우고 계신다.
- B. **땅의 모든 주민들아** : 리더십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땅의 거민들을 이를 곧 다르게 된다.
- C. 하나님께서 한 나라 가운데 주시는 더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가지며, 금식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젊은 남녀 리더십들을 세우시는 것이다.
- D. 진행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길 바란다 : 리더들이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백성들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듣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IV. 메시지를 말하기 -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의 필요성

Session 05 요엘서의 2가지 영적 문화 세우기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욘 1:3)

- A. 우리는 이 메시지에 대해 듣고 사로잡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것을 선포해야 한다(욘 1:3). 진리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비난당했고, 매장 당했고, 옥에 갇혔으며, 죽임을 당했다.
- B.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계시와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요엘서의 두 가지 마지막 때의 메시지에 대해 선포하는 용기와 믿음에 대해 귀하게 여기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요엘서 1장 2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 (NIV : use)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막 4:23-25)

V. 자녀들에게 말하라 - 역동적인 영적 문화 세우기

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욘 1:3)

- A. 늙은 자들이 들으며 땅의 모든 거민들이 귀를 기울일 것에 대해 요청한 후에, 요엘은 말한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에 대해 말해주시오.” 요엘은 4세대에 걸친 위임 명령을 주는데, 이는 이 부분에 대해 자녀들이 배우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표현한 것이다. 늙은 자들/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 B. 모든 자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이해하며, 이와 관련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 알기 위해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한다. 노아의 세 아들이 다가올 홍수에 대해 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 듣는 일은 “평범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대해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의 일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거나 무관심해지기를 원치 않는다.
- C. 아이들의 영은 마치 부드럽고 잘 배울 수 있는 젖은 시멘트와도 같다. 아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자 정상적인 일들에 대해 들어야만 한다. 성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오랜 시간을 고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유년기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 D.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부드러운 마음이 성경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이 땅에 위대한 영광과 큰 재난이 올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이다.
- E. 우리는 교회 안에 올바른 영적인 문화를 세워야 하는데, 이 문화는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 자녀들에게 “말함으로써” 세워지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함으로써 세워진다. 네 세대가 이를 이

Session 05 요엘서의 2가지 영적 문화 세우기

해하게 될 때, 진리로 가득 찬 올바른 영적인 환경이 세워지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F. 요엘서의 메시지에 따른 다이내믹한 영적인 문화를 세우는 것은, 자기만족적이며 평온함으로 가득한 기롱하는 영(벧후 3:3-4)이 우리 자녀들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G. 기롱하는 영적인 문화는 오늘날의 교회의 일부분에서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여긴다.

H.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순종, 많은 기도가 일상적인 영적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 나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하라...”(골 1:3)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원하시는 것이다. 주께서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영적인 문화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이것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 될지 상상해보라.

H. 나는 IHOP-KC에서 시니어 리더십 팀으로 섬기고 있는 레니(Lenny)와 트레이시(Tracy LaGuardia)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들은 성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요엘서의 메시지를 알아나가도록 훈련시키는 팀을 이끌어왔다. 그들은 25년이 넘도록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섬겨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 나가는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그들의 비전과 일관성은 나에게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